

기업윤리 실천으로 초고속 성장

지속적으로 골판지 업계 신기술 특허 달성



이 기 완
(주)조은포장 대표이사

세계 시장의 상승과 중국 경제의 성장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골판지 포장산업은 생산시설의 과잉투자와 가격경쟁의 무질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0여년이 넘는 국내 골판지 포장산업은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업계간 불신, 신제품 및 신기술에 대한 단일한 태도가 효율적 생산성 향상의 장애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골심지를 중심으로 한 골판지 원지 가격인상과 수급 불안현상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업계최고의 고속성장을 이루며 신제품 개발과 기술공정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주)조은포장(대표이사 이기완)을 찾았다.

(주)조은포장 이기완 대표이사는 1988년 조일제지(주)에 입사, 10여년간 영업, 생산일을 도맡아 하며 골판지 제조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적립하게 된다.

조일제지(주) 생산시설 2호기 증설팀에서 품질 및 생산 공정 등을 익힘으로써 골판지 제조기술의 산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고, 제품개발 및 영업 업무를 통해 골판지 업계의 문제점과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됐다고 밝히는 이 사장은 국내 최초로 수입원지 대체품인 KLB 원지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해 국내 제지산업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사용자(실무자)에게 직접 영업하는 엔드유저 방식을 국내 최초로 고안, 도입하는 등 품질차별화는 물론 영업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주)조은포장 공장전경

차별화 방법으로 당시 조일제지(주) 매출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사업가로 성공하겠다는 이기완 사장의 포부와 제지업계에서의 오랜 노하우로 창립된 골판지 원단 생산기업, 조은포장은 1999년 5월 자본금 20억 원으로 설립된 업계 새내기 기업임에도 창립 5년이라는 시간을 무색하게 할만큼 무섭게 고성장하는 등 쾌거를 거두고 있다.

(주)조은포장 2000년 4월 법인전환한데 이어, 2002년 현재의 충북 음성군 대소면으로 공장 및 사업체를 이전하면서 생산시설 1, 2호기의 설비를 갖추는 등 연간 60백만의 생산 규모와 기술진을 보유하

고 있다.

현재 조은포장은 창립 첫달 2,700만원의 매출실적에서, 지난 달 14억의 매출을 거둬 업계 최고의 고성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조은포장이 업계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내실경영을 실천했다는데 있다.

내실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 성장은 2002년 한국산업은행 유망중소기업과 올해 1월 기술산업재단 폐널 기업 선정된 데 이어, 4월에는 이기완 사장이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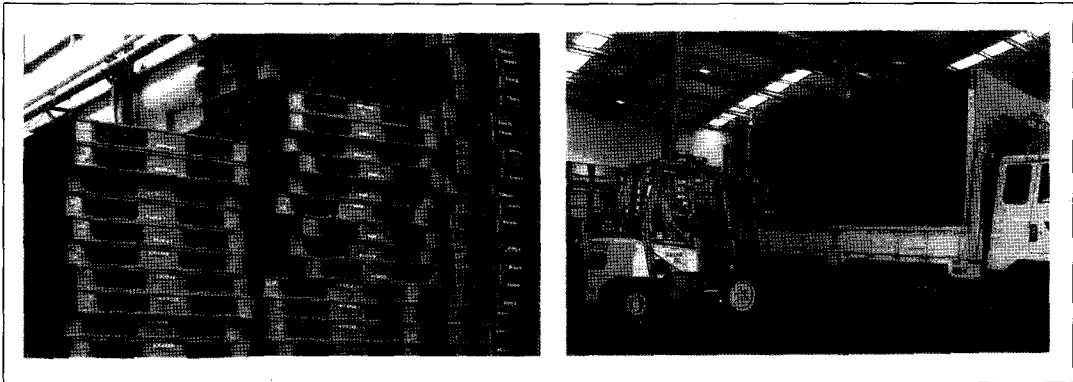
이기완 사장은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고객감동을 실

현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흑자경영 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조은포장은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ISO 9001 취득지원사업 부문에 지원,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 품질시스템을 인정받아 고객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한층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업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길은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강한 신념으로 생산공정의 체계적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정보화 IT사업과 사무자동화 ERP 사업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양질의 서비스

Cho eun



▲ 원단출고시 파렛트와 동시에 적재하고 있는 (주)조은포장

를 제공하고 있는 것.

이기완 사장은 “중소기업청 정보화 사업과 중진공 ERP 사업과 연계되어 생산시설 자동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투자비용을 절감을 이루는 동시에 정부 시책의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데 흐뭇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치열한 산업경쟁속에서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생산공정의 체계적 관리와 이를 DB화하여 문제점 파악 및 구조적 개선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것.

현재 골판지원단 순수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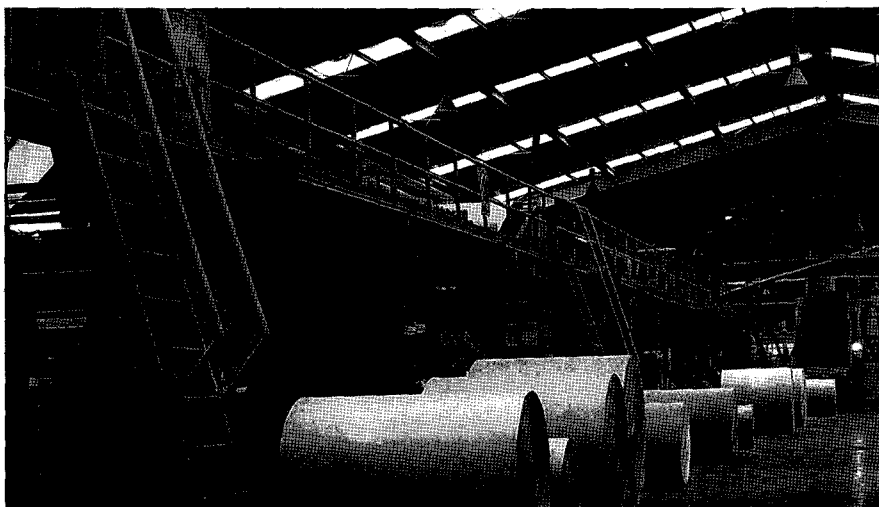
판매율 충청지역 1위를 점하고 있는 (주)조은포장에서 생산하는 골판지 원단은 농수산물 포장재부터 전기·전자제품 포장재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기완 사장은 “현재 골판지 업계는 시설의 난무와 가격경쟁의 무질서로 붕괴현상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공정의 혁신으로 부가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기술공정의 혁신을 피력하는 이 사장의 노력으로 (주)조

은포장은 지난 6월 ‘선명한 인쇄기능한 골판지(F골)’ ‘F골 합지 sheet 및 box 가공’ ‘방수골판지(양면)’에 대한 실용신안 획득 및 특허를 출원, 지난 6월 30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골판지골판지기자재 산업전에 참가하여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주)조은포장은 F골판지가 얇고 가벼우며 기존의 E골보다 골수가 조밀하여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선명하고 부피가 줄어드는 환경친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 F골을 이용한 F골 편면골판지, 양면



◀ 골판지원단 제조 1호기

골판지, 누드박스, 방수골판지의 상용화 및 적용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기완 사장은 “얼마전 피자, 치킨 등의 포장 용지에서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키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다”며 “(주)조은포장이 고안한 누드박스 적용을 통해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조은포장의 방수 골판지는 “종이는 물에 약하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코팅 합지를 이용함으로써 농수산물에 포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완 사장의 오랜 제지 영업으로 원료를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주)조은포장

의 최대강점이다. 현재 (주)조은포장은 “원료를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기완 사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 영동 지역에 영동에 12,000평 규모의 파지수집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주)조은포장 이기완 사장은 “어떤 경우라도 ‘기업윤리’를 지키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창업초기부터 골판지 원단 제조기업이라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상도’를 지키기 위해 박스임가공에 영업은 일체 하지 않았다는 이 사장.

그는 “열악하고 영세한 박스임가공 업체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박스임가공 업체를 (주)조은포장에 편입·유치함으로써 수요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임대료 수입을 통한 영업의 비용을 충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골판지 업계의 계속되는 불황속에서도 2002년 대비 16% 성장을 이루면서, 올해 18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주)조은포장.

경기 호황에 대한 골판지 업계의 바람이 불투명한 현재 (주)조은포장은 “매년 얼마만큼 성장할지”에 대한 외적 욕심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과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업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

박초혜 기자